

尹 탄핵집회... 광주 '금남로 오월 항쟁길' 다시 열린다

14일 금남로에 차량 통행 차단... 1만 시민 행진·총궐기대회 타이거즈 응원가·K-POP 등 다양한 노래로 집회 분위기 띄워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던 금남로 등 '항쟁길'이 다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광주에서도 윤석열 탄핵 촉구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예정일인 오는 14일 금남로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행진을 한다.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오는 1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부터 금남로공원까지 거리의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1만여명 규모의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지난 4일부터 5·18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어왔으나, 이날은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만큼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금남로까지 집회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앞선 집회에 매 회 1000여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에는 집회에 1000여명의 모였으며, 이후 집회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7일 경향 추산 3000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광주비상행동은 그동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요청을 수용해 KIA타이거즈 응원가와 K-POP 등 다양한 노래를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집회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이날 금남로 일대에서는 대학생, 노동조합원, 농민 등이 탄핵 촉구 메시지를 담은 행진을 한다. 민주

노총 광주지역분부는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500여명 회원들을 모아 광주시 북구 북동 수창초 앞에서부터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진보당 광주시당과 광주시농민회, 광주진보노점상연합 등은 남구 구동 광주공원 앞 광주교에서 300여명을 모아 5·18민주광장으로 향한다. 농민회는 현수막을 내건 트랙터를 몰고 행진에 동참할 방침이다.

전남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전남대 비상계엄 대응 기획단' (전남대 기획단)도 북구 용봉동 전남대 5·18 광장 (옛 '봉지')에서 5·18민주광장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전남대 기획단은 행진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전남대 캠퍼스 내 제1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전남대 비상계엄 대응 총집회'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행진 이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광주 시민 총궐기대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광주비상행동 집행부인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주화 역사를 품고 있는 금남로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1980년과 같이 계엄·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광주 민주시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며 "어린 청소년부터 기성세대까지 한 마음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는 광주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모두가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박근혜 탄핵 때 '금남로 촛불의 바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졌던 지난 2016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15만여명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탄핵 집회도 개성시대... 환경 생각하고 나만의 피켓 제작

광주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다화용기가 등장하고 계엄사태를 풍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탄핵집회도 환경생각=광주지역 탄핵 집회가 친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탄핵집회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다화용기가 사용되고 있다. 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킹 등 시민단체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어묵탕과 따뜻한 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단체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용 컵이나 그릇이 아닌 다화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광주 YMCA도 10일 진행한 '광주 기독교 시국기도회'에서 따뜻한 물과 함께 일회용품 대신 물컵을 사용하며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앞서 나가는 광주 집회'라는 제목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광주는 항상 바른 길로 앞서간다', '일회용품 사용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정말 깨어있는 것 같다',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 텀블러를 들고 나가야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신세대 개성 표출=탄핵집회 참가자들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부스도 준비됐다.

11일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에 따르면 14일 국회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집회 참여자들에게 나만의 깃발과 피켓 제작을 돕는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포함해 전국 집회 곳곳에서 등장한 '혼자 온 사람들', '민주묘향',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등 개성있는 깃발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집회 참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깃발을 통해 '이런 나조차 거리에 나오게 만들었다'고 사태를 풍자함과 동시에 유대감과 연대감을 나누고 있다.

깃발 제작은 12일 오후까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작 비용 1만원에 50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나만의 피켓' 제작은 14일 집회 현장에서 가능하다.

11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시민궐기대회에서는 '개사송 경연대회'도 개최됐다. KIA타이거즈 소크라테스 선수 응원가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우리 모두 촛불을 들자, 촛불을 들자"로 바꾸고, 캐롤 '펠리스 나비다(Feliz Navidad)'를 "탄핵이 다비다(답이다)"로 개사하는 방식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중고교에 '탄핵 열풍' 분다

대학가 대자보 다시 등장

중·고교생 시국선언 잇따라

광주지역 대학생과 중·고교생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

중고교생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광주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제14기 광주시 고등부 학생회의(단체)는 11일 광주 중·고등학생 7018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단체는 "계엄령은 44년 전 광주의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투쟁과 아물지 않는 아픔을 배우며 자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안겨줬다"며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책무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고 나와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목적도, 절차도 없는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다. 또 "환경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책임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수많은 시민의 피로 쓰인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고등부의회의장을 맡은 최장우(18·서석고)군은 "국회와 어른들을 믿었지만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것을 보고 분노했다"며 "광주학생항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이들의 후배·자손으로서 광주 학생들도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한다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12일 오후 5시 30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을 낭독할 계획이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는 학생들이 직접 써붙인 대자보가 붙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오월 정신을 지

키고자 이곳에서 선고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전문대 건물 입구에 붙였다. 대자보에는 "윤 대통령은 1980년 서울대 교정에서 5·18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것을 기억하라"며 "즉각 퇴진하고 오월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대학원생들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는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령의 역사는 호남과 긴밀하게 이뤄졌다. 반세기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과거의 유산은 유령이 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기도한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총학생회 '시선'도 캠퍼스에 "우리 조선대는 역사적으로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민주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 정신을 계승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대자보를 붙였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